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10. 1(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첨단항공과	담당자	·과장 오원만, 사무관 신경 ·☎ (044) 201-4307, 4315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고리원전서 드론방어체계 실증을 수행합니다.

공개실증 고리원전서 실시...효율적 드론방어체계 구축 박차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금일 ‘불법드론 탐지 및 대응’의 드론방어체계(Anti-Drone, 이하 안티드론) 공개실증 테스트를 시행을 합니다.

* 실증테스트 기간 : 9.30.~10.2.(3일, 공개 실증 10.1.)

○ 이번 실증은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하는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제 시설에 설치하여 드론 공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드론방어 시스템의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것으로, 실질적인 드론방어 실증데이터를 수집 할 예정입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‘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’*을 통해 ‘안티드론’ 사업자로 선정된 (주)STX 컨소시엄**의 한국형 불법드론 대응기술 개발이 원자력발전소와 육군의 드론방어시스템을 시범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* 동 사업을 통해 드론실증도시를 시범운영하는 지자체 컨소시엄은 각 10억원을, 지정 및 자유공모 사업자에게는 각 1억~4.6억 원을 지원

** (STX) 비행 및 실증시험 수행 (한화시스템) 드론탐지레이드 실증 (BA솔루션즈) 드론 전파탐지장비 및 전파차단장비 개조 (필라넷) 시스템 연동 소프트웨어 개발 (한국재난정보학회) 실증데이터 분석 및 표준운영절차 개발

- 또한, 규제완화, 자금지원, 수요-공급 연결을 통해 민간 드론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국내 산업용 드론시장의 외연 확대, 국민 체감도 증대를 위해 걸림돌 규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,
 - ‘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’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일정기간 규제 제한 없이 드론의 우수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이러한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종류의 드론 탐지 장비를 연동하여 통합관제가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, 실제 국가 중요시설을 불법드론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기술규격과 표준 운영절차 및 관련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되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.
- 최근 사우디 원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및 고리 한빛원전 불법 비행 등으로 국내에서도 드론에 의한 테러발생 가능성 등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, ‘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’ 수행을 통해 불법드론 대응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
- 국토교통부는 급증하는 불법드론 위협에 대해 국가중요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및 역할을 다할 것이며,
- 이번 고리원전에서 안티드론시스템을 직접 실증했다는데 의미가 크며, 앞으로 다른 국가기관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안티 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 정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채널A, 9.23.) >

◆ 원전 주변 ‘불법 드론’ 막는다... ‘주파수’ 이용 기술 개발
 우리의 드론 방어 기술이 원전은 물론 다른 주요 시설을 지켜낼지 주목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신경 사무관(☎ 044-201-431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